대입 지원 시 카운슬러로부터 좋은 추천서 받으려면

대입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는 바로 학교 카운슬러이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카운슬러는 수많은 대학들 가운에 학업적으로나 나의 성향 면에서 어떤 대학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의 필수 요강과 재정보조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준다. 또한 입시에 필요한 추천서를 써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카운슬러로부터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

교사의 추천서가 학생의 능력과 강점, 학생이 성취한 것에 대한 통찰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면, 카운슬러의 추천서는 학생이 고교에서 수강한 전체 수업들의 맥락 안에서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와 카운슬러의 추천서는 입시 과정에서 둘 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운슬러의 추천서가 교사의 추천서와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카운슬러를 선택해서 추천서를 부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사는 내가 어느 교사에게 부탁할지 고민한 뒤 결정해서 부탁할 수 있지만, 카운슬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나에게 배정된 담당 카운슬러가 추천서를 쓰도록 되어 있다.

▲ 평소 카운슬러와 돈독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shutterstock

규모가 큰 고등학교에서는 카운슬러 1명이 워낙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카운슬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규모가 큰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미래 수업 스케줄을 짜기 위해 만나는 공식적인 미팅 외에도 카운슬러와 개인적으로 종종 미팅을 잡는 것이 좋다. 나의 목표와 야망, 학업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의 다른 면모들에 대해 카운슬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독한 관계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카운슬러가 나의 강점에 대해 추천서에서 잘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카운슬러가 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카운슬러가 나에 대해 잘 안다면, 추천서에서 그런 독특하고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잘 드러나게 되므로 동급생들 사이에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카운슬러와 소통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카운슬러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상담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카운슬러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지나친 요구나 재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카운슬러와 미팅에서는 정성껏 작성한 레주메(브랙시트)와 지금까지 수강했거나 현재 듣고 있는 과목 리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카운슬러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나의 강점과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학 진학은 수지 안 맞는 투자"

미국인들 사이에 대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드는 학비 등 총비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수지가 안 맞는 투자' 란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민일보' 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36%만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57%)과 2018년(48%)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Z세대(1995~2004년생)의 45%가 "고교 졸업장이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고 응답했다. 갤럽의 2021년 조사에선 미국인 학부모 중 46%가 자녀가 고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대학 등록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0년 미 전역 대학에 등록한 학부생 수가 1,800만명이 넘었던 데 비해 2021년에는 1,550만명을 밑돌았다. 13년 사이 무려 250만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2016년까지 고교 졸업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최근 대학 진학률은 62%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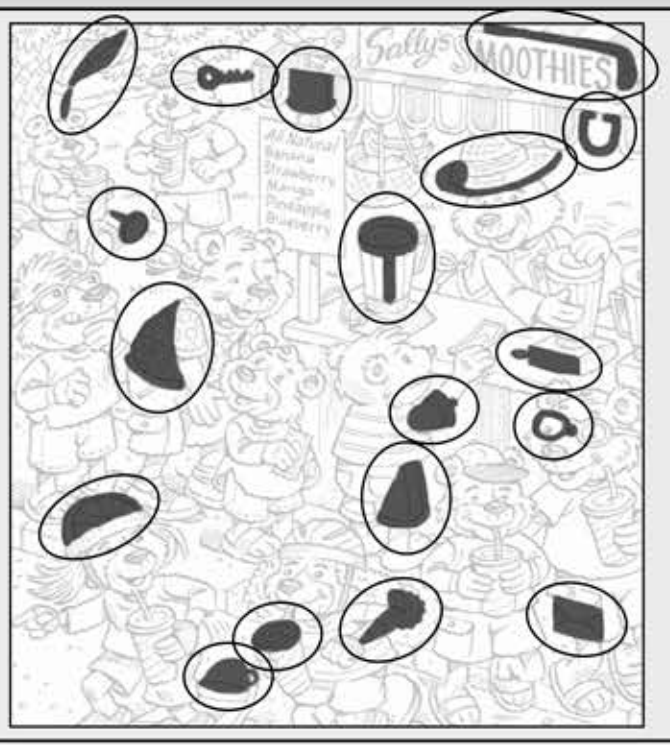
NYT는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데 비용은 급증하는데, 대학 졸업 후 얻는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를 뜻하는 '임금 프리미엄' 은 점차 증가해 왔다. 2000년대 초반 이들 간 임금 격차는 60%를 넘었으며 이후 65% 안팎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4년제 사립 및 공립 대학 등록금은 199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사립대학에 다니는 데 드는 1년간 총비용은 생활비를 포함해 연간 5만8,000달러로 추산된다. 비용 충당을 위해 학비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늘어나 이들의 총부채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2007년(5,00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많아졌다. 이에 비해 캐나다와 일본의 공립대학 등록금은 연간 5,000달러 정도이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독일 등의 대학 등록금은 무료다.

미국의 대학 입학생 중 40%가 졸업하지 못하며 전공에 따라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대 더글러스 웨버 교수 연구에 따르면 경영학, 공학 등 학위가 있으면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약 75%에 달하지만, 예술이나 인문학 등을 전공할 경우 고임금은 보장받기 어렵다.

NYT는 "대졸자 감소로 미 경제는 2030년까지 1조2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이며 이는 미국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컨설팅기업 콘페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노동시장에서 대졸 인력 650만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수학전문 • 수천명 가르친 경험으로

- 필요할 때만, 배우고 싶을 때만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만 그날 그날 Pay 하면 됨
- 1분 ~ 120분 사이로 (1분이든, 28분이든, 43분이든) 배우고
- 배운 시간만큼 Pay 하면 됨

- 어떤 과목이든지 (Alg 1, Geom, Alg 2, Trig, Precal, AP Cal)
- 어떤 문제든지 99% 보는 즉시
-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심하지 않고
- 단 1초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가르쳐줌

- 1:1 개인지도 (Fullerton Office에 와서 칠판 강의)
- 급한 Test, 중요한 Test, 어려운 Homework
-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
- 특별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

▪ Fullerton
▪ Buena Park

Since 1994
(213)384-2400

혹시 전화 못 받으면 문자 주십시오